

수 학 보 고 서

슬로베니아 파견자 경영학부 207xxxx 윤xx호

파견기간 : 2012년 10월 ~ 2013년 7월

파견대학 : 슬로베니아 루블랴나(Ljubljana) 대학교

1.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 준비사항은 교환학생 지원에 필요한 서류들(상대 홈페이지 참고)을 빠짐없이 준비해서 상대 행정실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필요 할 것입니다. 이건 기본이고 따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은 이 곳 슬로베니아 기숙사는 학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곳 International office 담당자인 Alma에게 문의하여 한국에서 오기 전에 기숙사 신청을 필히 해 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리 기숙사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호스텔에 묵으면서 기숙사 Office에 Waiting 걸 어놓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주~3주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준비해 야 하는 것은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 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오는 것이 있겠네요. 나머지 사소 한 것들을 챙겨오는 것은 본인의 기호에 따라 챙겨 오시면 되겠지만 너무 신경 써서 세세한 것 까진 챙겨오지 마세요 짐 됩니다.

2. 파견학교(위치 교통편) 소개 및 정착비용

기본적으로 루블랴나는 조그만 도시 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정도만 여기서 생활 하시면 기본적 으로 다니는 동선은 모두 다 파악 될 것입니다. 처음 기숙사 Office나 Faculty of Economics의 International Office에 찾아 오실 때는 우선 루블랴나 대학교에서 지정해 주는 튜터의 도움을 받 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며, 차선으로는 택시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택시비가 생각보다 저렴하 여 초반에 정신 없을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회사별로 가격이 천차만별 인데 Laguna(080 111 7)와 Metro(080 119 0)가 저렴합니다. 한국의 콜택시 개념으로 전화를 하면 본인이 있는 곳으로 픽업을 올 것입니다.

보통 슬로베니아에서 한달 생활비는 기숙사비와 식비, 오락비, 유흥비 등을 모두 다 포함 한다 하더라도 60~70만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초반 정착비용이라고 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 는 곳은 없으므로 비슷하게 생각하고 오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 기숙사에 들어올 때 Deposit의 개념으로 2달치 렌트비인 180유로를 맡겨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3. 교육과정 및 수업내용

교환학생의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수업내용 또한 한국에서 보다 딱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영어실력에 따라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지원하는 시기인 만큼 교환학생을 진정 오고자 한다면 영어공부를 지금부터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와서 부족한 영어실력을 통감하고 영어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영어 지식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를 한 뒤에 여기서 배운 것을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생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좀 더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슬로베니아 경제학부 수업은 6ETCS를 부여하며 우리학교 환산 학점은 4학점 입니다. 따라서 한 학기에 5개 정도를 수강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성실히 학교생활을 한다면 Pass는 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내활동 및 교외활동

교내 활동으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수업을 듣고 조별과제를 하고 시험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수업 듣는 것과 조별과제를 하면서 외국인 친구들과 가까워 지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왕이면 한국 학생들과 같이 앉으면서 한국에서 수업 듣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있는 것 보다는, 잘 모르더라도 외국인 친구 옆에 앉고 말도 걸고 수업 끝나면 점심도 같이 먹으러 가자고 먼저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생활방식이 교환학생 생활에서는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교환학생 생활의 질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한국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외활동 또한 본인의 적극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매주 여러 파티가 열립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파티가 아니라, 그냥 빈 공간에 자신이 마실 주류를 가지고 가서 같이 마시다가 저녁엔 모두 같이 클럽에 가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파티에 가더라도 먼저 말을 걸고 재미있게 즐기 않는다면 지루하게 멍뚱히 서서 있다 집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영어를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시아인의 특성상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말도 많이 못하게 되고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묻혀 듣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영어공부가 필수 입니다. 또 슬로베니아에 한국문화나 언어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통 관심사가 있고 한국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더 대화를 나누기 편합니다. 저는 처음에 슬로베니아에 오기 전 Interpals.net라는 사이트를 통해 펜팔 친구를 사귀고 왔는데 그 친구가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를 통해 다른 여러 학생들을 알게 되었고 매주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 같이 인턴의 기회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찾아본다면 한국 진출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도 있고, 한국 브랜드가 진출해 있기도 하므로 인턴십의 기회를 찾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수입업협회(KOIMA)가 한번 슬로베니아에 온 적이 있는데 그곳 컨퍼런스에 참가한 친구를 통해 슬로베니아 현지기업에서의 일자리를 하나 소개받아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5. 기숙사, 도서관 등 학교 부대시설

기숙사는 루블라냐 전 지역에 여러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Faculty of Economic에서 가장 가까운 기숙사는 Bezigrad 기숙사이며, 학교와 1분거리에 있는 가장 가깝고도 깨끗한 기숙사 입니다. 따라서 기숙사 신청 시 Bezigrad 기숙사를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외에 유명한 기숙사로 Rozna Dolina라는 기숙사가 있는데 1년 365일 내내 파티가 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파티가 많이 열리고 시끄럽습니다. 시설은 Bezigrad보다 못한 편이며 시내와는 좀 더 가깝고 학교와는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학교 시설은 깨끗합니다. 도서관도 Faculty of Economics내에 따로 있으므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단,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 밖에 안 되고 주말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6. 주변 환경

슬로베니아는 교환학생으로 오기 정말 매력 있는 곳입니다. 먼저,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딜 가든 환영 받고 신기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좀 더 친구를 사귀기에 용이합니다. 또한 영어권 나라가 아니지만 슬로베니아 사람들 모두 영어를 잘 합니다. 학생들은 두 말 할 것도 없거니와 나이가 많은 사람들 또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물가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기숙사가 Bezigrad 기준으로 90유로 밖에 하지 않습니다만, 깨끗하고 아파트 형식으로 2인1실로 사용하고 아파트 안에 방이 2개가 있어 4명에서 주방 하나와 욕실 하나를 공유합니다. 또 스튜던트 쿠폰이라는 제도가 있어 그 쿠폰을 사용하여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시에 적게는 2유로에서 많게는 4유로 정도로 한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63유로에 해당하는 만큼 슬로베니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이는 집에서 해 먹는 것 보다 저렴 하므로 슬로베니아에서 교환학생 생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알프스 산맥 끝자락에 위치하여 자연환경도 맑은 깨끗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작아서 주변 국으로 여행을 하기에 용이합니다. 4시간이면 비엔나, 베네치아, 뮌헨 등등의 도시까지 갈 수 있어 주말에도 여행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7. 후배에게 남기고 싶은 말

앞서 언급하였지만 진정으로 교환학생 생활을 잘 하고 싶다면, 교환학생에 선발되는 것 보다 되고 나서의 과정이 더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지금은 경쟁률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교환학생 선발은 꾸준히 진심으로 하고자 하였고, 준비하였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국제처 프로그램도 많고 상대학생들은 상대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국가가 있고 어딜 가든 교환학생 생활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파견되는 국가의 진정한 커뮤니티에 녹아 들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수학기간 내내 다른 국가의 교환학생들이나 해당 대학교의 학생들과 보다 많이 어울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영어'입니다. 저도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해서 여기에 처음 왔었지만 정말 또 한번 뼈저리게 영어실력의 부재를 통감하였습니다. 일단 외국에서 영어가 되지 않으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우울해 지기도 하고 향수병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이에 한국 학생들과 계속해서 어울리게 되고 한국에서 생

활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교환학생 목적에 따라 생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실력 못지않게 혹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와 마인드 입니다. 영어를 못하더라도 용감하게 부딪혀 보고 생활한다면 친구도 많이 사귄 수 있고, 보다 알찬 교환학생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곳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본인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외국에 나와서 혼자 살겠다고 작정하였다면, 좀 더 각오를 다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군대도 다녀오고 나름 해외 배낭여행도 1년 6개월 이상을 홀로 하였습니다만, 처음에 우울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못하게 된다면 친구를 사귀는 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티에 간다고 하더라도, 혼자 조용히 있으면 누가 먼저 말을 걸어 온다 던지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쓰다 보니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도 생각나고 몰입하게 돼서 건방진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만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려움을 통감하고 고생했던 것을 토대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고생을 조금 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었습니다.

교환학생의 기회는 노력여하에 따라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그냥 그런 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에 대한 환상을 조금 버리시고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시고 준비하여서 되도록 본인이 원하시는 목적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8. 건의사항

저의 보고서가 모든 분들에게 충분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혹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hoo4u@daum.net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Facebook : [hoo4u@paran.com](https://www.facebook.com/hoo4u@paran.com) 으로 연락 주신다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단, 문의 주실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셔야 조금 더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